

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
그리스도의 예표였고, 하나님의 사람으로서
하나님의 대표, 하나님의 대행자로 처신하였음

성경: 왕하 2:19-22, 4:1-6:7

- I.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로운 기적들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— 왕하 4:9, 눅 4:27.
- A. 구약에 있는 예표들과 그림자들의 성취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참엘리사이시다. 참엘리사이신 주 예수님은 달콤하고 즐거움을 주는 신언자, 축복의 신언자이시다 — 왕하 4:9, 눅 4:27, 7:11-17.
 - B. 엘리사는 구약에 있는 예표로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대표한다.
 - 1. 은혜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— 요 1:1, 14-17.
 - 2. 이러한 은혜는 신성한 생명을 가져오는데, 이 신성한 생명은 풍성하고 높으며 심지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공동 왕들이 되게 한다 — 롬 5:17.
 - C.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을 치료한 기적과 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의 의미는 동일하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— 왕하 2:4, 19-22, 요 2:1-11.
 - D. 엘리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낸 일은 주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원칙상 동일하다 — 왕하 4:1-7, 8-17, 42-44, 마 14:14-21, 15:32-39.
 - E.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 일, 곧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준 일은 육신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동일하다 — 왕하 4:18-37, 눅 7:11-17, 요 11:41-44, 5:25.
 - F. 엘리사가 야생 박의 독성을 가루로 제거한 것은, 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물든 제자들을 고운 가루이신 그분 자신으로 치료하신 것과 원칙상 동일하다 — 왕하 4:41, 마 16:12.
 - G.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물에 빠진 도끼머리를 떠오르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물에 빠진 죄인들의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상징한다 — 왕하 6:6, 엡 2:1-6.
 - H. 엘리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신성한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지만,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은 기적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였다. 이것이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의 체험이었다 — 왕하 13:14.
 - 1. 바울은 드로비모를 위하여 병 고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를 병든 상태로 밀레도에 남겨 두었으며,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어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쳐 주지 않았다 — 딤후 4:20, 딤펢전 5:23, 행 19:11-12.
 - 2.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외적인 은사의 능력 아래 있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생명의 훈련 아래 있었다.
 - a. 전자는 능력 곧 기적적인 능력이 있는 은사의 문제이고, 후자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문제이다.
 - b. 교회가 하락해 갈 때, 또 사람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능력이 있는 은사보다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다 — 딤후 4:22.

- I. 엘리사는 비록 몸은 죽었지만 여전히 영 안에서 사역하여 죽은 한 사람을 살렸다 — 왕하 13:21.
1. 심지어 죽은 엘리사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.
 2.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다 — 요 11:25, 행 2:24, 빌 3:10.
 - a.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사람은 살아난다.
 - b. 거듭남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접촉하여 살아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— 비교 요 5:25, 엡 2:1-6상.

II. 모세와 사무엘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,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처신하였다 — 왕하 4:9.

- A. 여호와와 모세에게 그분이 그를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다 — 출 7:1상.
1.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그분을 대표하고 그분의 뜻을 집행할 한 사람을 얻으셨다. 모세는 결코 파라오에게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였다 — 출 3:16-18, 5:1.
 2. 사실상 파라오는 하나님의 대사인 모세의 말을 듣고 있거나 모세를 상대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.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다.
- B. 사무엘은 이 땅에 있는 그분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표였다. 사무엘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였다 — 삼상 1:11, 2:35, 7:3, 8:22.
1. 사무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였기 때문에, 그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었다 — 삼상 2:35.
 - a.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. 즉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복사본이며 복제였다.
 - b. 사무엘의 생활과 일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.
 2.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언자와 하나님의 행정이었다.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대행자였다.
- C.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믿는 이들을 위로하였고, 하나님의 단순성으로 처신하였으며, 하나님의 질투를 나타내었고,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였다 — 고후 1:3-4, 12, 11:2, 5:20.
1. 사도가 오랫동안 감금된 채 순탄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, 주님은 사도를 그분의 초월 안에 있게 하시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— 행 27:13-28:9.
 - a.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을 지닌 이러한 삶은 완전히 위엄 있는 삶이었으며, 수년 전에 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닮은 삶이었다.
 - b.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 사시는 것이었다.
 - c. 이것은 복음서들에서 사셨던,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한 하나님-사람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 중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시는 것이었다.
 2. 신약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면에서 바울과 똑같이 될 수 있다 — 딤후 1:16.

III.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이들, 하나님으로 구성된 이들, 하나님을 사는 이들,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들,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이들,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— 엡 1:4-5.

- A.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— 고전 6:17.
1. 성경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— 요 15:4.
 2.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함께 결합하여 한 생명이 됨으로 한 생활을 하기를 갈망하신다 — 고전 6:17.
- B. 우리는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— 엡 3:17상, 골 3:10-11.
1.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에 분배함으로써,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로 조성되어 그분의 존재와 한 조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— 엡 3:17상, 4:4-6.
 2. 신성한 생명 안에서, 그리고 신성한 생명의 법의 운행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실 것이며,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으로 조성될 것이다 — 롬 8:2, 6, 10-11, 29.
- C.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된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야 한다 — 빌 1:21상.
1.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,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요소와 그분의 실질과 그분의 본성의 성분들을 우리의 존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— 롬 8:2, 6, 10-11.
 2. 우리의 일상생활은 사실상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하며,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사는 생활이어야 한다 — 살전 2:12, 고전 10:31.
- D.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 — 창 1:26, 고후 3:18, 롬 8:29, 골 3:10.
1.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일해 넣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— 엡 1:11, 3:11, 딤후 1:9.
 2.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목표는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— 고전 6:17, 빌 1:21상, 엡 1:22-23.
- E.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— 수 1:1-9, 6:1-16.
1.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큰 바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분 자신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셨다 — 수 1:1-9, 6:1-16.
 2.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— 엡 1:5, 9, 계 14:1-4.
- F.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야 한다 — 창 1:26-28.
1.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. 아론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가 있었다 — 창 1:26, 2:9, 민 17:1-8.
 2.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다 — 출 7:1-2.
- G.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, 하나님으로 조성되며, 하나님을 살고, 하나님을 표현하며,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, 하나님을 대표한다면,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.
1.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어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게 하실 수 있다 — 골 3:4, 벧후 1:4, 엡 3:9.
 2. 하나님의 사람인 신언자 엘리시는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대표,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처신하였다.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되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— 왕하 4:9, 딤펢전 6:11, 딤후 3:17.